

▶ 달러/원 주간 전망

• 변동성 생기는 원화... 국내외 핵심 경제지표·FOMC 회의록 확인 필요

서울, 7월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핵심 경제지표 결과를 토대로 시장 방향을 탐색하는 장세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90-1,330원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추가 통화긴축 우려로 시장 시선이 옮겨가는 가운데 하반기를 시작하는 국내외 금융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말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한 수급 노이즈도 제거되는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은 모멘텀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기와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이번 주중 대거 포진해있다.

중국 차이신 제조업·서비스업 PMI, 미국 ISM 제조업·비제조업 PMI를 비롯해 미국 6월 고용지표 등이 예정돼있다. 아울러 6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및 지난해 깜짝 금리인상을 단행한 호주 중앙은행의 정책회의도 있다.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꺾이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 행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채권금리와 달러 행보에 당분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일정으로는 6월 소비자물가, 6월말 외환보유액, 5월 국제수지(잠정) 및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등이 발표된다.

지난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한 달러/원 환율은 월초 달러 방향과 수급 여건에 더욱 민감하게 연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상승 과정에서 상당 저항이 두텁지 않았던 만큼 시장참가자들은 매수심리에 힘이 실리는 조짐도 보였다.

미국 통화정책 기조와 반대 정책 행보를 가고 있는 중국과 일본 통화의 약세 변동성에 원화도 최근 영향을 받고 있다. 하반기 시작 시점에서 시장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베팅을 자제할 수 있어, 원화는 오히려 더 장중 거칠게 움직일 여지도 있다.

어수선한 대외 시장 분위기 따라 원화의 양방향 변동성 장세를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 주간 국내외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7월3일(월)

-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의결 (배포시)

7월4일(화)

- ⊙ 통계청: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2차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10:30)

7월5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6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0:00)
- ⊙ 금융감독원: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증권업계 CEO 간담회 개최 (15: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배포시)

7월6일(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UAE 경제공동위원회 (10:30)
-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자금순환(잠정) (12:00)
- ⊙ 금융위원회: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마련 (12:00)

7월7일(금)

- ⊙ 한국은행: 2023년 5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회의 (08: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09:30)
- ⊙ 한국은행: 2023년 12차(6.21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7월3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날짜     | 시간    | 국가  | 지표                  | 기간       | 로이터 전망 | 이전수치     |
|--------|-------|-----|---------------------|----------|--------|----------|
| 7월3일   | 08:50 | 일본  | 단칸 대형 제조업체 DI       | 2분기      | 3      | 1        |
| 7월3일   | 09:30 | 일본  |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 6월       |        | 49.8     |
| 7월3일   | 10:45 | 중국  |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     | 6월       | 50.2   | 50.9     |
| 7월3일   | 22:45 | 미국  | S&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 6월       |        | 46.3     |
| 7월3일   | 23:00 | 미국  | 건설지출 MM             | 5월       | 0.5%   | 1.2%     |
| 7월3일   | 23:00 | 미국  | ISM 제조업 PMI         | 6월       | 47.0   | 46.9     |
| 7월3-7일 | 08:50 | 일본  | 외환보유고               | 6월       |        | 1,254.5B |
| 7월3-7일 | 23:00 | 미국  | 자동차판매               | 6월       |        | 3.110M   |
| 7월5일   | 10:45 | 중국  | 차이신 서비스업 PMI        | 6월       |        | 57.1     |
| 7월5일   | 18:00 | 유로존 | 생산자물가 MM            | 5월       | -1.8%  | -3.2%    |
| 7월5일   | 23:00 | 미국  |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 5월       |        | 1.7%     |
| 7월5일   | 23:00 | 미국  | 공장주문 MM             | 5월       | 0.8%   | 0.4%     |
| 7월6일   | 18:00 | 유로존 | 소매판매 MM             | 5월       | 0.2%   | 0.0%     |
| 7월6일   | 20:00 | 미국  | 모기지마켓지수             | 6월26일 주간 |        | 216.1    |
| 7월6일   | 20:30 | 미국  | 챌린저 해고건수            | 6월       |        | 80.089k  |
| 7월6일   | 21:15 | 미국  | ADP 전국고용            | 6월       | 230k   | 278k     |
| 7월6일   | 21:30 | 미국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6월26일 주간 | 245k   | 239k     |
| 7월6일   | 23:00 | 미국  | ISM 서비스업 PMI        | 6월       | 51.0   | 50.3     |
| 7월7일   | 08:30 | 일본  | 가계지출 YY             | 5월       | -2.4%  | -4.4%    |
| 7월7일   | 14:00 | 일본  | 경기동행지수              | 5월       |        | 0.2      |
| 7월7일   | 14:00 | 일본  | 경기선행지수              | 5월       |        | 0.0      |
| 7월7일   | 21:30 | 미국  |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 6월       | 225k   | 339k     |
| 7월7일   | 21:30 | 미국  | 실업률                 | 6월       | 3.7%   | 3.7%     |
| 7월7일   |       | 중국  | 외환보유고               | 6월       |        | 3.177T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4일(화)

-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후 1시30분)

7월5일(수)

- ⊙ 연방준비제도 6월13-14일 FOMC 회의록 공개 (6일 오전 3시)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CEBRA 연차총회 토론 참석 (6일 오전 5시)

7월6일(목)

- ⊙ 로리 로건 달러스 연방은행 총재, CEBRA 연차총회 패널토론 참석 (오후 9시45분)

7월7일(금)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액상 프로방스 경제회의 패널토론 참석 (8일 오전 1시45분)

## ▶ 금주 세계 5대 이슈

### ⊙ 미국 고용지표

미국 경제의 회복력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견실함이 7일 발표될 월간 고용지표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중 신규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22만5000명 증가해 전월보다 둔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5월에는 취업자 수는 33만9000명으로 전망을 상회한 바 있다. 다만 실업률이 7개월 만의 최고치인 3.7%로 상승해 노동시장 여건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준비제도는 6월 금리 인상을 건너뛰었지만 7월 인상을 재개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물론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었다면 금리 인상 재개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부터 금리를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 ⊙ 중국 경제지표와 부양책

이번 주 중국에서 발표될 경제지표는 당국이 부진한 경제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리라는 추측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기업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심리 약화와 부동산 시장 부진에 중국 증시 CSI300지수는 지난 분기 약 5% 하락했고, 위안은 올해 들어 달러 대비 4.6% 가량 절하됐다.

중국은 지난 27일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예상보다 낮게 설정했는데, 경제 정책이 부양모드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당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세가 더 악화된다면 "더 공격적인" 대응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추측하고 있다.

###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요즘 가장 혼란스러운 건 아마 호주 투자자들일 것이다. 오는 4일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호주 중앙은행과 경제지표가 시장에 연이은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3년 만의 최저치로 하락해 긴축 베팅이 줄어든지 하루 만에 소매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이전에는 도비시한 통화정책 회의록이 공개되며 시장을 놀라게 한 뒤 고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늘어난 바 있다.

시장은 4일 3회 연속 금리 25bp 인상 가능성을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고, 호주달러 가치는 수 주 만의 최저치 부근이다. 지난번 인상 결정 시 동결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서프라이

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러시아 반란 후폭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었던 바그너그룹의 반란은 피했는지 모르나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지위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모멘텀에 변화가 생기면 전 세계에서 여파가 체감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원유에서 곡물에 이르는 상품시장이다.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경우 인플레이 압력과 리스크 회피 등 파급효과가 각 기업과 각국에까지 미칠 것이다.

반란으로 인한 러시아 국내의 여파는 아직 진행 중이다. 러시아 군 장성 두 명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정치적 리스크 우려에 루블 가치는 달러 대비 15개월 만의 최저치로 하락했다.

### ⊙ 그리드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율이 수 년 만의 최고치에서 둔화되었지만, 장을 보거나 주유를 하거나 또는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요국의 실제 생활비는 여전히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들은 1분기 기업 이익이 유로존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의 4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른 곳에서도 그 비율은 비슷했다고 추산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오려면 기업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일부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역 흐름도 정상화되었고, 소맥과 해바라기씨유, 원유 가격도 낮아졌다.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에 정책당국과 소비자들의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美·네덜란드, 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방침

6월30일 (로이터) -

미국과 네덜란드가 자국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올 여름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를 더욱 제한할 계획이다.

네덜란드는 30일 ASML 등의 특정 장비 수출 제한 등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인데, 한 소식통은 새 규정이 2개월 후인 9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중국 최대 반도체업체 SMIC 등 특정 공장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요구할 계획이다. 소식통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장비 수출 라이선스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같은 규정이 7월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 정부와 ASML, 미국 상무부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